2021년도 부산대학교 홍보저널 『문창대』 제작 기본 계획

Ⅰ. 사업 개요

1. 사업 요약

가. 사 업 명: **2021년도 부산대학교 홍보저널 『문창대』 제작**

나. 사업 목적: 부산대학교의 최신 발전상과 구성원의 우수 실적 등을 알림으로써 대학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다. 사업 기간: **계약일 ~ 2022. 2. 28.**

라. 소요 예산: **6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선정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전문 기획사 공모
- 심사기준 별도 마련(심사위원회 구성)
- 제안서는 종합 100점(기술능력 80점, 가격 20점)으로 평가함.

바. 계약 방법: 심사를 통해 최적의 업체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사업 범위

가. 제작 범위

- 『문창대』 2021년 제작분 제63호~제64호(총 2개호)
- 원고(인터뷰 등)·촬영·디자인·편집·인쇄·제본 등 인쇄물 제작 일체
- 인쇄물 완료 후 카드뉴스 제작(5건 내외, 건당 10p 내외)

나. 제작 시기 및 수량

호수	제작시기(월)	책자수량(부)	봉투수량(매)
제63호(2021하반기호)	5~9	5,000	3,000
제64호(2022상반기호)	10~2(다음해)	11,000	8,000
합계		**16,000**	**11,000**

- 카드뉴스: 인쇄물 발간 후 1개월 내 제작 완료

다. 판형: 책자 가로 214 × 세로 275(mm)

봉투 가로 235 × 세로 280(mm) ※ 접착면 235×50mm

라. 발행 지면: 총 72면(표지 4면, 내지 68면, 각 호)

마. 인쇄 색도: 4도(단, 봉투는 은별색)

바. 인쇄 지질

- 책자 표지: 아르떼 190g/㎡(무광코팅)

* 후가공 -부분유광, 별색, 박 등 1종 이상 포함 제안

- 책자 내지: 프리미엄 매트지 100g/㎡
- 봉투: 투명비닐(OPP, 0.5마이크론)

사. 제본: 무사무선철

아. 납품

- 책자 및 봉투 상기 수량
- 편집용 원본 파일 일체
- 본 과업용역으로 촬영한 사진 일체는 제작기간 중(책자 납품 전) 본교에 제출하며 사진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은 본교가 소유함.

자. 제작사양 외 기타사항

- 표지모델 활용 시 촬영료 포함(1인당 10만 원, 인원수 호별 상이)
- DM 발송 작업 및 우편료 포함
- DM 수량(예정 수량으로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호수	DM 수량	비고
제63호	1,200건 내외	
제64호	6,300건 내외	신입생 5,100명 내외 포함
합계	**7,500건 내외**	

차. 참고: 목표 독자

- 부산대 구성원(교수, 직원, 학생, 동문)
- 발전기금 출연자 및 후원의 집
- 전국 대학 및 주요 고교
- 기타 유관기관 및 행사용

3. 사업 추진 일정

내 용	일 정(2021)
연간 제작 계획 수립	3. 29.(월) ~ 3. 30.(화)
구매규격 사전공개	3. 31.(수) ~ 4.6.(화)
입찰 공고	4. 7.(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 통보	4. 8.(목) ~ 4. 28.(수)
제안서 접수	4. 29.(목)
평가 및 제작사 선정	4. 30.(금) ~ 5. 7.(금) 입찰결과 발표
계약 체결	5. 10.(월) 이후
제63호(2021하반기호) 제작	5월 ~ 9월
제64호(2021상반기호) 제작	10월 ~ 2월(다음해)

※ 추진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연간 계약(일정 장기화)에 따른 제작비 지급 관련 사항은 추후 협의 예정

4. 제작 방향

가. 부산대 발전상 및 구성원 업적 전달(대중성, 가독성 위주)

나. 전체 레이아웃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각 코너 주제 또는 인터뷰이의 특징을 살린 색상과 감각적인 디자인 적용

다. 부산대학교의 이미지를 적절하게 활용해 대학 저널로서 정체성 표현

라. 기타 작업 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대학 저널 제작

5. 지면 구성(호별 상이)

코너명	면수	코너명	면수
앞/뒤표지	2	PNU 줌인	10
PNU에세이/목차	2	PNU 줌아웃	10
총장 인사말	2	글로벌 PNU	6
커버스토리	12	발전기금/후원의집	4
캠퍼스 소식	10	언론리뷰	2
PNU 사람들(인터뷰)	10	기타-정보성기사	2

Ⅱ. 입찰 관련 사항

1. 입찰 사항

가. 입찰공고번호: 부산대학교 홍보실 공고 제2021-01호
나. 입찰명: 2021년도 부산대학교 홍보저널 『문창대』 제작
다. 입찰가격: 6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참가 자격기준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에 따라 출판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따라 인쇄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입찰 접수 시 구비서류를 입찰접수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마. 부도·화의·법정관리 업체 제외
바. 지역 제한 없음.
사. 기타사항: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안 함.

3.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안 요청 설명회: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나. 제출 기한: 2021. 4. 29.(목) 10:00~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다. 제출 방법: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라. 제출 및 문의처: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대학교 본관 4층 홍보실 서진주 ☎ 051-510-1286

마. 제출 서류 및 물품 ※ 별지 서식

1) 입찰용 제안서 1부
2) 밀봉 서류 1부
3) 심사용 제안서 5부
4) 인쇄실적 실물 2종
5) 디자인(안) 1매

4. (상세) 제출 서류 및 물품

가. 입찰용 제안서(원본) 1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법인인감) 날인

1.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 제2호]**
3. 인쇄물 제작실적 집계표 **[별지 제3호]**
4. 사업실적증명원 **[별지 제4호]**
5. 보안서약서 **[별지 제5호]**
6. 청렴계약이행각서 **[별지 제6호]**
7. 인감증명서(법인은 인감신고서)
8. 사업자등록증 사본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0.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1. 출판사, 인쇄사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사본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3. 입찰보증금(보험증권으로 제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나. 밀봉 서류 1부

1. 가격제안서 **[별지 제7호]**
2. 가격산출내역서 **[별지 제8호]**

다. 심사용 제안서 5부

- 별지 서식 없음. 제안업체의 기획의도가 잘 표현되도록 자유롭게 작성하되,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업체명 표기 1부, 표기 않음 4부)

Ⅰ. 제안서 표지

Ⅱ. 제작 기획

1. 제작 방향
2. 지면구성 상세(안) ※ **Ⅰ.5.지면구성** 참고하여 72면으로 제안 / 코너별 제안 상세 설명 포함
3. 디자인(안) ※ 실사 출력하여 별도 제출 / 폼보드 규격 엄수
4. 디자인 제안 특징 및 장점 피력

Ⅲ. 사업 수행 계획

1. 추진 일정
2. 과업수행 조직체계 ※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프로필 기재
   ※ 아웃소싱 참여인력은 '직급'란에 반드시 '외주' 표기하고 현직 기입
3. 기타: 과업 참여인력의 원고 2편(기사, 인터뷰) **[별지 제9호 활용]**

라. 인쇄실적 실물 2종

- 기존에 직접 제작한 책자 형태의 인쇄실적 실물 제출
  (추가 수량 제출 불가)

마. 디자인(안) 1매

○ **디자인(안)은 실제 사이즈로 출력하여 폼보드에 붙여 제출**

- **폼보드 규격: 가로 550 × 세로 770mm**, 크기변형 불가(업체명 표기 안 함.)
- **총 7매(펼친면):** 표지-하/상반기 2매, 커버스토리 1매, 인터뷰 1매, 기고 1매, 대학평가 1매, 자유제안 1매

1	표지-63호 2021년 하반기호	원고[붙임]
2	표지-64호 2022년 상반기호	
3	커버스토리	
4	인터뷰	
5	기고	
6	성과지표	
7	자유제안	별도 없음

- 펼친면을 1매로 간주하고, 표지는 앞/뒤표지 포함
- 표지는 인물 또는 전경, 일러스트 등 대학저널임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제안
- 디자인(안)은 **[붙임] 원고**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제안
- 디자인(안) 사용 사진은 내용과 어울리는 구성으로 임의컷 배치
- 단, 디자인(안)에 사용된 **사진은 본 입찰 참여인력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 디자인(안)의 PDF파일을 USB로 제출(1개 파일로 취합, 업체명 표기)

5. 일정

가. 입찰일: 2021. 4. 29.(목) 10:00~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나. 입찰가격 개찰: 입찰 당일 17:30, 부산대학교 본관 4층 홍보실

다. 입찰결과 발표: 2021. 5. 7.(목), 부산대학교 홈페이지(www.pusan.ac.kr) 공고

※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Ⅲ. 제안 관련 사항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주관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해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에 작성된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적증명서 원본을 첨부한 것에 한해 인정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업체는 제시된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해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제안서는 제안업체 대표자가 인감 또는 법인인감 서명 날인
- 제안업체는 제안 또는 계약과정에서 지득한 본교의 각종정보에 대해 기밀 유지해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2. 일반 사항

가. 제작업체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교가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제작해야 함.

나. 본 과업의 제작업체 담당인력은 본교와 협의 없이 교체할 수 없음.

다.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교에 불이익 발생 시 계약업체가 배상책임을 짐.
- 기획, 구성, 편집 등 제작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기타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본교 담당자와 협의해야 함.

3. 제안 관련 유의 사항

가. 제안업체는 입찰요령과 본교 제반규정 및 지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를 준수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해 얻은 당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됨.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작성・제출된 모든 내용은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라.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해 작성돼야 하며, 만약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사유가 됨.
마. 계약 후라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바. 평가는 주관기관의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아. 본 사업에 소요된 사업 개발비용자료를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함.
자.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차. 계약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배치되는 경우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카. 관계법령 등의 숙지(근거: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타. 참가업체는 심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해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본교의 해석에 따름.
파.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본교 소유로 귀속됨.

4. 기타 사항

가. 본 과업과 관련한 법적권한(판권과 저작권 등)은 본교가 소유함.

나. 본 과업용역에 있어 저작권, 특허권 등 타인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 계약업체가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짐.

다. 상기 사항 외에는 상호협의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름.

Ⅳ. 평가 및 계약

1. 입찰 및 낙찰방식

가. 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7조 및 동법률시행령제43조

다.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 개요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 규정에 따라 심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실시
- 낙찰자 선정절차
  -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가격 및 기술 평가 → 협상 → 계약 체결
-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해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 비율: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20점)
  - 예정가격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 기술평가(80점)
  - 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술능력평가기준 및 채점기준에 따라 실시
  - 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 제안요청기관은 필요 시 제안서 평가기간 중 제안서 제출업체에 대하여 제안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라.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시행규칙제14조규정,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 처리
- 낙찰자 결정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2. 계약 조건

가.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나.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따름.

다. 본 사업의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함.

라.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해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으로 함.

마.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바.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 대법원 동 사업 관련해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를 누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1항제18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조치함.

사.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가. 가격평가는 입찰가격평정산식에 따름.

나. 기술평가는 심사위원회에서 별도 정함.

청렴 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부산대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부산대학교 청렴 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

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 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 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소관 부서장(실・처・단장, 독립팀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대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산대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디 자 인 (안) 제 작 을 위 한 원 고 - 1/2

- 표제 / 제호, UI 및 QR코드 -

☐ **표제/제호**

문창대 제63호(2021년 하반기호)

문창대 제64호(2022년 상반기호)

☐ UI

부산대학교 홈페이지-학교소개-상징 바로연결

☐ **QR코드** (주로 뒤표지에 배치)

부산대학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디 자 인(안) 제 작 을 위 한 원 고 - 3
- 커버스토리 -

코 너 명	커버스토리
주 제	조직 개편
제 목	대학 본연의 책무인 교육과 연구 도약을 위한 새로운 도전 부산대, 교육혁신처·연구처 신설 행정조직 개편

본문

제21대 차정인 신임 총장 취임과 더불어 부산대 행정조직 개편이 단행됐다. 대학 본연의 책무인 교육과 연구의 두 축을 강화하겠다는 신임 총장의 의지에 따라, 교육·연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조직 및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혁신처와 연구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알아보자.

<교육혁신처> 교육혁신과 교육 주요 사안 총괄

부산대는 급변하는 교육의 패러다임과 더욱 확장되는 신산업분야 인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초보호학문 및 융·복합 분야 연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실현하는 '교육혁신처'와 '연구처'를 신설, 이러한 수요와 흐름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먼저 교육혁신처는 교육혁신정책을 수립하고 교과·비교과 과정 운영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 교무처 내의 교육기획과 운영 기능을 이관·통합했다. 이를 통해 교양교육, 교육과정의 질 관리, 학습역량 및 성과 관리, 온라인교육 기반 조성 등 교육 관련 중요 사안을 포괄하는 종합적·전략적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혁신뿐만 아니라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조직으로 재정립해 전문 분야별 체계화를 통한 고도화된 교육모델 개발에 나선다.

<연구처> 연구정보 관리와 종합적인 연구지원 체계 구축

연구처는 연구정보를 총괄하고 중장기 연구기획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연구역량 지표 향상과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를 위해 기존 R&D미래전략본부를 독립 기구로 분리해 연구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산학협력단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처는 기초학문 및 계열별 연구기획, 연구비 수주 전략을 마련해 연구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중장기 연구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교내 연구정보를 총괄·기획하는 베이스캠프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특히 학내 연구(실) 및 연구성과 데이터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분석함으로써 연구 관련 정보의 현황과 수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지원한다.

연구처의 이러한 지원활동은 혁신적이고 자발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해 부산대의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지원 인프라 정보나 성과 데이터 등의 집중관리로 연구지원의 효율성 제고와 기초보호학문 분야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Interview

"변화하는 고등교육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양임정 부산대 교육혁신처장

"초연결시대 진입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더욱 가속화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 역시 이처럼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방향에 따라 그 역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부산대 대학본부 조직인 교육혁신처 양임정 교육혁신처장(물리학과 교수)은 대학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요구되는 시기 속에서 교육혁신처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대학교육의 변화 속에서 가장 필요한 조직이라고 여겨지는 교육혁신처에서 교육적 공익에 일조하기 위해 성실하게 직을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등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정책을 총괄할 본부조직이 필요합니다. 교육과 관련한 주요 사안들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능동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대 교육혁신처가 설립됐죠. 우선 교육 운영과 개선의 환류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교육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양임정 처장은 통상의 행정지원 업무와 함께 교과·비교과과정 운영의 중심적인 역할을 통해 교육과정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특히 정부재정지원사업이 학생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에 효과적으로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내의 다양한 교육 관련 기관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학교육정책에 맞춰 교육과 프로그램을 협력하여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교육혁신처는 국립대의 책무인 학문세대 육성과 사회적 요구에 균형을 갖춘 교육과정을 개발해 학생들이 다양한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사회의 중심에 담대하게 우뚝 설 인재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과에 얽매이지 않은 연구자 중심의 지원에 최선 다할 것"

유인권 부산대 연구처장

"그동안 우리 대학들은 속된 말로 '돈 되는' 근시안적인 연구만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립대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부산대 연구처는 교수님들이 성과지상주의에 쫓기지 않고 누구나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그리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권 부산대 연구처장(물리학과 교수)은 부산대가 대학의 본분인 교육과 연구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바로 그것이 차정인 총장의 총장임용 후보자 시절 슬로건인 '부산대를 부산대답게' 만드는 일이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남들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말고 부산대 본연의 가치와 특색을 자신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구처는 이번에 교육혁신처와 함께 부산대에서는 처음 신설된 본부 조직이다.

"그동안 산학에만 치중한 양적인 연구보다, 질적으로 유니크한 연구성과를 끊이지 않고 창출해 내는 것이 국립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처는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유인권 처장은 부산대의 5개 계열마다, 또는 신임·중견·원로 교수마다, 그리고 연구의 단계마다 연구자들이 원하는 바가 제각각이므로 지원의 형태 역시 모두 달라야 하는 것을 자신 또한 연구자로서 몸소 느껴왔다고 강조했다. 향후 연구처는 부산대 교수들의 연구를 적재적소에 지원하기 위해 흩어진 연구 데이터를 취합해 연구 관련 현황이나 수요, 성과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기획해 형평성 있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대 연구처는 전국 국립대 중 최초로 탄생한 연구지원 전담 부서입니다.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이라 어깨가 무겁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아무쪼록 부산대 교수님들이 즐거운 연구생활을 해나가는 데 연구처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디 자 인(안) 제 작 을 위 한 원 고 - 4
- 인터뷰 -

코 너 명	PNU PEOPLE
제 목	"에코델타시티 그린인프라 기술 개발과 녹색복원 전문 인재 교육의 요람으로 도약" 부산에코델타시티에 LID 기술을 지원하는
인터뷰이	신현석 그린인프라·저영향개발센터장(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본문

부산대 그린인프라·저영향개발센터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사업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LID(저영향개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가 지원하는 녹색융합기술 특성화대학원에도 선정돼 올해부터 '녹색복원-저영향개발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하는 등 바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신현석 센터장(사회환경스시템학과 교수)이 센터의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전망했다.

도시의 회색 인프라에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 부여

부산대는 2013년 국내 유일의 그린인프라 기술 국가연구단을 유치한 이후 2016년 양산캠퍼스에 그린인프라·저영향개발센터(이하 GI&LID센터, Green Infrastructure & Low Impact Development)를 설립해 미래 녹색도시기술을 실증·연구하는 세계 최초의 통합연구센터로서 혁신기술을 축적해오고 있다.

"도심 속 모든 건축물, 도로, 공원, 항만, 공항과 같은 기존의 '그레이(gray)인프라'들을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부여한 그린인프라·저영향개발 기술로 개발하는 그린인프라 사업이 정부의 국가그린뉴딜정책 시행과 맞물려 부각되면서 그린인프라가 도시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GI&LID센터 신현석 센터장은 그린인프라가 제 기능을 하려면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한다. 첫째 물이 제대로 순환돼야 하며, 둘째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해야 하고, 셋째 시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의 경우, 기존에는 홍수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면 그린인프라 내에서는 홍수를 저감하고 도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나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수반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빗물을 땅속으로 침투시켜 재해를 방지하고 침투한 빗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가 그린인프라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에코델타시티의 핵심기술인 그린인프라·저영향개발기술 검증

"국가적으로 스마트시티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친환경 녹색도시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난 15년간 기술개발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고, 이를 통해 그린인프라를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하는 기술 개발이 도시의 재탄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부산대 GI&LID센터는 '부산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사업'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스마트 LID 리빙랩 구축에 협력하는 MOU를 체결하고, 스마트도시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저영향개발기술의 검증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린인프라·저영향개발기술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녹색융합기술이 녹아있어야 합니다. 특히 에코델타

시티 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요. 건축·도시·토목·환경·재난·IT 등의 전문 분야들이 융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신현석 센터장은 그린인프라·저영향개발기술을 바탕으로 한 녹색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많은 선진국들이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미래 신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그는 그린인프라 사업의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기술의 적용'을 손꼽았다. AI나 빅데이터, 드론 등 비용이 저렴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스마트그린인프라를 구현한다면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 양성 위한 녹색복원-저영향개발 특성화대학원 문 활짝

한편 GI&LID센터는 지난해 11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녹색 융합기술 특성화대학원'에 선정됐다. 올해부터 3년(최대 5년)간 약 30억 원의 지원을 받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대는 녹색복원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는다. 신현석 센터장은 GI&LID센터가 '녹색복원-저영향개발 특성화대학원'의 문을 열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GI&LID센터가 2016년 최초로 설립한 이후 그린인프라·저영향개발기술이라는 동기 발현과 연구 발굴을 시작으로 실증과 도입을 통해 교육기반을 꾸준히 구축해왔습니다. 특히 50건 이상의 녹색복원 LID 산학연구실적과 함께 세계 최초의 녹색복원 그린인프라 교육 및 실습인프라를 갖춰 마침내 녹색복원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베이스캠프 구축이라는 목표를 실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GI&LID센터는 '녹색복원 LID 오픈&리빙랩'을 조성해 산업계와 연계한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실제로 GI&LID센터는 산업체 종사자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실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녹색복원-저영향개발 특성화대학원은 석·박사과정, 산업체 단기과정과 함께 시민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을 야심차게 세우고 있다. 그린인프라 산업이 최종적으로 성공하려면 시민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신현석 센터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그린인프라 정책포럼'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해 스마트그린인프라·저영향개발기술로 녹색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시민들의 힘을 모으기도 했다.

"연구는 수직으로 심도를 더해가는 반면, 교육은 수평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린인프라·저영향개발기술은 바로 교육을 통해 가장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디 자 인 (안) 제 작 을 위 한 원 고 - 5

- 기고 -

코 너 명	특별기고
제 목	의생명 다학제 연구로 가는 길, 국가 거점 국립대의 책무
기 고 자	김건일 부산대 수의과대학 신설 추진을 위한 TF 위원장(의무부총장, 의학과 교수)

본문

밴쿠버 돼지의 기억

필자는 25년 전 캐나다 밴쿠버의 한 대학병원에서 펠로우를 한 적이 있다. 맡았던 업무 중의 하나로 돼지의 폐색전증을 유발하는 실험이 있었다. 실험의 첫 날 보았던 실험동물 대기실의 풍경은 인상적이었다. 그 곳은 유치원의 내부처럼 예쁘게 꾸며져 있었고, 불쌍한 돼지 한 마리가 유아용 침대 같은 곳에서 장난감과 같이 꿀꿀거리고 있었다. 실험 후 안락사를 당할 운명을 알지도 못한 채, 그 돼지는 수의사의 손에 길들여진 강아지처럼 유순하게 따라 나왔고, 병원의 혈관촬영실로 옮겨졌다.

11시가 넘은 깊은 밤이었다. 유명 대학병원이었지만, 아직 실험동물용 영상장비까지 구입할 정도의 재정이 풍부한 실험동물센터는 아니었던 것 같다. 사람 환자를 검사하는 촬영실을 쓰자니, 늦은 밤에 실험할 수밖에 없었다. 병원과 실험동 사이에는 지하로 길이 나있어서, 외부 사람들은 우리를 볼 수 없었다.

담당 수의사는 능숙한 솜씨로 기관지 삽관을 하고 마취를 시작하였고, 실험의 전 과정 내내 돼지의 상태를 주의깊게 잘 살펴주었다. 벨기에에서 온 동료 펠로우와 함께 나는 폐혈관 촬영을 마쳤고, 수의사에 의해 안락사 당한 돼지의 폐혈관에 플라스틱 폴리머를 주입하여 돼지 폐동맥의 구조를 남겼다. 그 이후 폐조직의 용해 등 며칠간의 후속과정은 모두 수의사가 이끄는 실험팀의 직원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그 수의사 덕에 실험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 돼지의 안락사 과정에 죄책감이 크게 들지는 않았다. 이 실험이 의학의 발전에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지 않아도 되었던 것 같다.

당시 우리 의과대학의 동물실험실 상태는 매우 열악하여, 대동물 실험을 빈번히 할 수도 없었지만, 간혹 하더라도 너무 끔직한 과정을 거쳤다. 보수동 개다리라는 곳에서 적당한 크기의 개를 적당히 사왔다. 어떤 관리 상태인지도 모르며 어떤 질병이 있는지 검사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동물의 해부학이나 생리학에 익숙하지도 않은 우리 젊은 의사들이 그냥 용감하게 실험을 했다. 밴쿠버의 그 돼지와 보수동 영양탕용 개의 강렬한 대비는 늘 마음속에 자리잡았다. 큰 포유동물은 때로는 필자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부분 꽤 감수성이 높고 머리가 좋다.

수의과대학 유치 활동

우리 부산대학교는 수의과대학을 유치하려고 한다. 거기에는 꽤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밴쿠버 돼지의 기억은 필자에게 우리 대학이 수의대를 유치해야 한다는 강한 동기를 주어, 수의업계의 강한 반대에도 끈기있게 추진할 힘을 준다. 동물실험을 제대로 하는 것은 결국 연구의 질적 수준과도 직결되어 논문의 우수성을 평가하는데도 이용되며 좋은 과학잡지에 연구논문이 실리는가도 결정한다. 이것은 서늘한 현실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피터 싱어가 제시한 인간윤리의 expanding circle을 소환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인간 중 많은 인간들은 '고통을 느끼는 세상의 모든 동물'에 대해서까지 그 안위를 배려하는 본성이 생겼다. 최근 국내

에서 개의 인공안구 실험을 위해 멀쩡한 비글견의 안구를 적출하고 인공안구가 미관상 잘 맞는지를 보고자 한 연구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내 상식적인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 과연 누구를 위한 미관인가?
우리나라 수의사의 부족은 최신 의생명과학 연구에 필수적인 동물실험시설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국내 식약처에 등록된 동물실험시설은 모두 470곳(2020년 6월 현재)이며, 이 중 수의사를 두고 우수동물실험시설로 등록한 곳은 17곳에 불과하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실험동물 수의사의 처우, 조직 내 의사연구자를 비롯한 구성원과의 관계, 실험동물센터의 열악함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결과일 것이라고 본다. 필자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의생명계열 국가경쟁력을 키우려면, 동물실험의 기본부터 제대로 해야한다고 믿는다. 현재까지 수의과대학이나 수의사단체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으며, 향후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일 것이다.
우리 대학이 만약 수의대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다면, 국내 수의사 처우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실험동물 수의사의 처우개선 외에도 매우 많아 보인다. 산업동물 수의사, 가축방역관, 검역관, 공무원, 실험동물전문 수의사, 인수공통병 연구자의 부족과 처우에 관한 이슈, 축산농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등 많은 문제는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와도 같다.
최근 반려인구의 급성장으로 몇몇 특수지역 (서울 강남 등)을 제외한 대도시 동물병원 수의사들에게 당장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듯 하지만, 반려동물 수의사의 지역적 수급 불균형도 결국 풀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수의사의 공공의식과 반려인의 책임의식이 잘 조화되어야 반려문화의 성숙기를 향한 과정에서 나타남직한 유기동물수의 증가와 같은 부작용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수의보건사와 같은 수의사 보조인력의 제도화도 준비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수의업계의 산적한 문제는 우리 대학이 유치에 성공한다면 수의업계의 동료로서 같이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왜 부산대학교인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원헬스(One Health)'는 인간의 병, 동물의 병, 환경의 병을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지구 생명과 환경의 안위를 포괄적으로 배려하는 개념이다. 최근 창궐한 인수공통 혹은 동물유래 감염병 연구는 수의학자, 환경학자, 의학자가 협업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낸다.
우리 수의대 신설 추진을 위한 TF는 최근 인기학과로 부상한 수의학과라서 유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부산대학교에는 의생명계열의 단과대학이 모두 다 있다. 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약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등이 원헬스의 주역인데 바로 주인공인 수의대가 빠져있다. 30년 동안 신설되지 않은 수의대를 우리가 유치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물론 국가 거점 국립대 중 유일하게 수의과대학이 없기도 하다). 졸업 후 반려동물 수의사로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할 학생들을 길러내는 수의과대학을 만들고 싶다.
필자는 40년 전 의과대학생 시절에 생리학을 수의사이신 교수님에게 감사하게 잘 배웠다. 원헬스를 실천하는 미국의 주요 대학과 대학병원에서는 수의대학생들이 의대에서 공부하고, 의대학생들이 수의대에서 공부하는 사례들이 많다. 공동의 다학제 컨퍼런스도 흔하다. 의생명과학이 잘 발달한 선진국가의 학계에서는 상하의 권력관계나 파벌로 인한 갈등은 잘 가꾼 협력의 조직문화 속에서 모두 용해되어 버린 것 같다. 국가 거점 국립대인 부산대학교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아니겠는가?

디 자 인(안) 제 작 을 위 한 원 고 - 6

- 평가지표 -

코 너 명	평가지표
제 목	**2022 평가지표로 본 부산대학교**

본문

■ 영국 THE 세계대학평가
- 세계 601~800위, 국내 16위

■ 중앙일보 대학평가(종합평가)
- 비수도권 국립대 1위

■ 한국경제 이공계 대학평가 평판도
- 비서울·비특성화대학 1위(전체11위)

■ 국립대학육성사업 평가등급
- 거점 국립대 유일 최고 A등급
- 사업비 2년 연속 전국 1위(2019년 사업비 110억 원)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부산대 컨소시엄 선정
- 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 협력형
- 5년간 총 57.5억 원 투입
- 공공기관·지역전략산업 혁신선도인재 키워 취업까지 연계

■ 고용노동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훈련기관 선정
- 빅데이터/실감형콘텐츠 2개 분야 운영

■ 대학창업펀드 2호 42억 원 조성
- 대학창업 활성화 속도...대학-정부 매칭 지원

■ 과기부 BRL(Basic Research Lab, 기초연구실지원사업) 2년 연속 2개 과제 선정
-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한동욱, 화학과 양해식 교수팀 선정
- 나노대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3년 연속 BRL 선정 쾌거
  (2017 김창석 교수, 2018 김규정 교수, 2019 한동욱 교수)

■ **국내 1000대 기업 CEO 부산대 7위**
- 지방대 중 최다 30명 배출 'CEO 요람지'

■ **국내 500대 기업 CEO 부산대 7위**
- 17명(3%), 2015~2019 CEO 비율 1.1%p ↑

■ **30대 그룹 CEO 지역 소재 대학 중 최다 배출**
- 9명, 지역 소재 대학 중 22%

■ **LG전자 임원 배출 부산대 1위**
- 전체 330명 중 30명, 9.1% 기록

■ **국가 교육근로장학 취업연계 중점대학**
- 2016~2019 4년 연속 선정

■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 2016~2019 4년 연속 선정

디 자 인 (안) 제 작 을 위 한 원 고 - 7

- 자유제안으로 별도 원고 없음. ★ 단, 본교 관련 내용이어야 함. -